전위음악 · 범패 등 박사논문 주제 '다채'

동국대 서울 · 경주캠, 불교박사 17명 배출

백남준 등 작품 禪적 분석
법화경 미학적 고찰 시도해
범패수행 · 차명상 · 설화 등
수행 · 교육 측면 연구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는 각각 2월 16일, 17일 봄학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2021년 봄학기 17명의 불교 관련 박사(서울캠퍼스 12명, 경주캠퍼스 5명)가 배출됐다. 이번 박사 학위 논문들은 전위음악과 선에 관련한 연구부터 전통교학, 응용불교학 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의 논문들이 눈길을 끌었다.

무념 스님(불교학과)은 **'반야의 전개와 수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반야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모두 반야가 해탈과 열반 등 깨달음의 본질이며 이는 대승에도 전승돼 〈대승반야경〉에서 제법실상인 공(空)을 토대로 반야(般若)의 완성인 반야바라밀 수행을 선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운 스님(불교학과)의 **'〈능엄경〉의 수행체계 연구'**는 〈능엄경〉에서 제시하는 체계를 식심견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경에서는 먼저 교학적토대로 본성 자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불지견(佛知見)을 세우고 사교입선으로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통수증하여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심 스님(선학과)의 **'일승의 무상의에 대한 연구'**는 일승이 불법의 무상의라고 일컬어지는 뜻을 십여시 · 일대사인연 · 대승보살도라는 세 가지 측면서 살폈다. 이에 따르면 〈법화경〉의 십여시에는 일승의 실상이, 일대사인연에는 일승의 지혜가, 대승보살도에는 일승의 행이 드러나 있다.

덕림 스님(선학과)은 **'범패의 수행원리와 활용방안 연구'**에서 범패수행의 원리가 실현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체험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수록했다. 이에 따라면 범패수행과정에서 범패의 발성과 선율을 기억하는 수련 등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범패 수행 참가자 전원이 수행에 대한 신념과 자존감이 향상됐다.

보원 스님(선학과)의 **'금강심론 수행론 연구'**는 구한말에서 해방을 살다간 선지식 벽산의 〈금강심론〉을 전반을 살폈다.

승범 스님(한국불교융합학과)은 **'조선후기 화엄십지 사기 연구–연담과 인악의 사기를 중심으로'**를 통해 편양파의 설파상언, 연담유일, 인악의첨 등 18세기 화엄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인물들이 저술한 '화엄십지사기'를 연구 · 역주한 결과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당시의 교학승들이 〈화엄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이해하였는지, 그 사상적 경향이 상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다.

연산 스님(인도철학과)은 **'한국불교 관욕의식 연구–경전적 근거와 설행'**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불교의 관욕의식이 인도 종교의 모습에서 비판과 변용과 수용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불교의식의 궁극적인 가치와 의미는 바라문교나 인도의 정통종교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것으로 불교 진리에서 구현됐다"고 밝혔다.

김나래(선학과)의 **'전위(Avant–garde) 음악과 선(禪)에 관한 연구'**는 백남준, 존 케이지 등의 전위음악가의 예술 활동을 선적으로 조명해 전위음악에 반영된 선사상을 고찰했다.

김수진(불교학과)은 **'여산 혜원의 법신관 연구'**에서 중국 동진의 고승 여산 혜원(334~416)의 법신관이 "현학의 사조와 반야학 및 아비담학의 사상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후 구마라집의 대승 교의에 따른 법신관을 흡수 · 통합한 결과물"임을 밝혔다.

김유리(인도철학과)는 **'차명상(茶冥想)의 이해와 발전방안–인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에서 "차명상은 불교적 가치를 통해 내면을 통찰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불성을 인성으로 환원한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원(불교학과)은 **'〈법화경〉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법화경〉을 미학적으로 이해하였을때, 문헌학 연구를 통해서는 밝히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을 찾거나, 혹은 문헌학 연구들에 대해서 보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면서 "불교미학(佛教美學)은 응용불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순수한 불교교학이나 사학의 영역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현숙(미술사학과)의 **'조선시대 단청 연구'**는 단청의 개념사 정립과 조선시대 단청의 양식을 규명하고 단청의 규범과 위계적 특성을 파악했다. 또한 단청의 성격과 인식의 저변에 깔린 문화사적 의의를 고찰해 조선시대 단청의 전모를 밝혔다.

이밖에도 △**서병찬(응용불교학)**의 **'태국의 신흥불교에 관한 연구–Dhammakaya 사마디 깨우(Samathikeaw) 명상을 중심으로'** △**명오 스님(불교교학)**의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에 관한 통시적 연구'** △**명진 스님(유아교육학과)**의 **'한국불교설화기반 유아종교문화교육콘텐츠 연구'** △**수안 스님(사회복지학과)**의 **'노인의 연명치료 선호도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원경 스님(사회복지학과)**의 **'한국 장사복지의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눈길'

묘공학술상 · 장학생 공모
학술대회 · 발표회 개최도
3월 20일 한마음선원에서
올해 첫 계절발표회 개최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 분야는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와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다. 응모는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여야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면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연구원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불교학, 선학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음연구〉에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한마음연구〉는 학진 등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불교학,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과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자다. 선발 공모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행선 사상 선양과 진흥을 위한 학술적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는 6월 19일 동국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올해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3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밀교의 시각으로 본 대행 스님의 주인공-〈한마음요전〉을 통하여(강대현, 위덕대)'와 '한국불교의 사상적 전통과 한마음선원 석탑의 조형 의미(도윤수, 인하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 법우 스님(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장), 정성준(동국대), 이석환(동국대), 김기상(아리건설 대표)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백양사 아미타설법도'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25일 지정 예고
복장유물 6건도 함께 지정
'비암사 극락보전' 보물로
세종시 최초 '보물'문화재

지난 2006년 환수된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91호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호남을 대표하는 고찰 백양사에서 300년 넘게 전래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994년 9월 도난됐으나, 2006년 9월 지금의 제자리로 환수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불화이다. 본존 아미타불이 여러 제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1775년(영조 51) 백양사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조성한 작품이다.

수화승 색민을 비롯해 계헌 등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하여 그린 작품으로, 승려 환월당 민숙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부모 봉씨 부부가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며 주문 제작한 것이다. 승려가 이처럼 직접 대시주자(大施主者)로 나선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보물 지정 예정인 '백양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불화의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원형에 큰 손상 없이 전래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으로 2m가 넘는 긴 화면에 압도적으로 그려진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표현 등에서 장중함과 상승감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는 수화승 색민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색민이 그의 만년기에 그린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색민과 함께 그림 제작에 참여한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이 되어 그린 작품으로 의겸-색민-계헌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의겸 화풍의 전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 대표적 불화"라면서 "불화의 조성시기, 참여자 명단 등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복장낭 등 복장유물 6건도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한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첫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비암사 극락보전'이 2월 23일 지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